

미래 핵심 인재 육성 적극 나서다

전라남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탐방



▲ 박중은 교장

전라남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교장 박중은)의 'M+ 250, 중학교 교육력제고' 사업에서 'M'은 Middle School의 첫 자이고, '250'은 전라남도의 250개의 중학교 수를 의미한다. (올해 한 학교가 통합되어 249개의 학교가 되었으나, 상징적으로 250을 사용하고 있다.)

목포항도여자중학교는 학교 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3가지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가지 영역에는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자기 주도의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학습 역량,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정서 순화로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인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능력과 미래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사고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됐다

학습 역량 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각 교과 선생님께서 학년별로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후 시간에 보충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충학습 지도자료로 "놀이"를 활용하여 학생교과도 직접 만들고 열정적인 관심과 지도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고 있다.

인성 역량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의 독서 토론반 운영, 다독한 시상, 잡지사, 자서전 쓰기 공모를 통한 꿈을 키우고, 문학 답사 및 도서관 발서우기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학 활동과 더불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있다.

사회성 역량 프로그램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침 맞이 행사, 회의 진행법 교육, 바느질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목포항도여자중학교의 행사 중에는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설레게 하는 도서관 '밤새우기'가 있다. 참여 학생 선정기준은 희망자, 독서토론 활동 참여자, 도서 다(多) 대출자, 독서 기록 우수자로 선정한다.

2016학년도 프로그램은 첫째 날은 책방 놀이, 뇌와 독서, 도서관 보물찾기, 재미있는 책 읽기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독서 글든별, 시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봤지만 친구랑 또 보고 싶은 영화, 아침 신화, 소감 정리, 평가의 순으로 잠을 자지 않고, 토요일 오전 10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는 1학년 기말고사 끝난 후 3학년 학생들 30명을 선정하여 7월 14일(금요일)부터 7월 15일(토요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프로그램도 학생회, 도서 도우미, 학생 독서 토론 동아리, 민주 시민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논의하여 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도서관 밤새우기를 통해 학생들이 이룬다고 따뜻한 추억을 쌓고,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세상을 향해 담당하게 사자하는 사회의 멋진 리더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리더십 캠프, 1박 2일

목포항도여자중학교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1박 2일간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80명의 학생들이 8명의 교사 지도하에 리더십 캠프를 가졌다.

학생은 당일 선생님, 학생자치 담당교사, 학교 폭력 담당교사, Wee Class 상담사 추천으로 리더십이 있거나 리더십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여했다.

캠프의 목적은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회·학급회 학생의 리더십을 키우고, 협동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주적인 토의 문화를 정착하며,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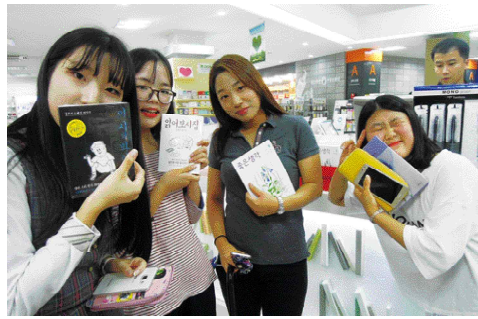
첫째 날은 오후 1시 20분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입식식, 글든별(학생생활자치규정, 인권 등)과 공동체 놀이로 친구들과 또는 선·후배간의 마음열기가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7모둠으로 나눠 3가지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1주제는 7모둠이 각 모둠마다 토의 소주제(함께하는 학교, 사유하는 학생, 참여하는 학생, 즐거운 학생, 안전한 학생, 책임지는 학생, 튼튼한 학생)을 제시하여 1년 동안 학생들의 활동 계획과 실행방법을 논의하여 각 모둠별로 노트를 사용하여 PPT자료를 만들었다.

2주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선언문에 넣을 내용을 토의하였고, 3주제는 간부윤리 강령(인원 자격 신상선, 소감 정리, 평가의 순으로 잠을 자지 않고, 토요일 오전 10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리더십 캠프



▲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둘째 날은 각 모둠별로 PPT 자료를 활용하여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전지에 모듬별 자료를 작성하여 전시한 후 각 학생들이 다른 모듬의 좋았던 점과 수정해야 할 점을 포스트잇에 붙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의 논리성, 책임감, 소통능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엿볼 수 있었다.

■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동행

목포항도여자중학교는 2017학년도 학교 특색 교육활동으로 "행복한 동행" 멘토링을 실천하고 있다. 교과와 학생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경제,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멘토와의 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함으로써 스스로가 가능성 있는 미래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행복누리실(교육 복지실)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은 10명으로 10분의 선생님과 28명의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1:1로, 때로는 1:2~3으로 필요에 따라 가벼운 산책, 등산, 영화 감상,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신뢰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활동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서로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M+ 250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성부문 멘토링 활동으로는 5월(1:1), 10월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매주 화요일 방과후에 2시간씩 각 팀 별로 비즈질을 하면서 상담과 재능 개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될 경우(교우 갈등 등) 멘토링이 진행되는 데 학생부장,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 담임이 수시로 방과후나 점심시간에 멘토링이 실시된다. 교우 갈등은



▲ 행복한 동행

로 인해 서로가 서먹했던 1학년 문모 학생은 6월 1일 방과후에 교무부장선생님과 멘토링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일어 날수가 없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즉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니 학교생활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 항도여중의 작은 박물관, 구름다리

목포항도여자중학교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다. 이 구름다리는 수업 이동 시에는 통로로 주로 이용되지만, 특별한 장소로도 이용된다. 때로는 작은 갤러리도, 때로는 역사가 숨겨진 박물관으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로 이용된다. 학기 초에는 리더십 캠프 활동에서 학생회 1년의 계획, 산도 활동, 독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토론했고 의견을 모은 자료를 게시는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 학생들이 활동 자료를 보고 소감과 의견을 포스트잇으로 붙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4. 16 리얼메트 행사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편지와 그림, 글 등 생활오 관련 자료를 전시했다. 학생들은 유족이나 피해 학생들에게 쓰는 편지, 추모 그림을 제작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5. 18 민주유 공로 기념일을 앞두고 구름다리에는 당시의 사진자료 및 선언문, 역사자료를 순서대로 전시하여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이용했다.

이외에도 학습사전 공모전, 각 교과에서 실시하는 수업자료들이 수시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이면에는 민주시민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숨어 있다.

축제때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 자유 학기제 작품, 공예 작품, 진로 활동 자료, Wee Class 활동 자료 등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재능과 수업활동 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변신하게 된다.

